



## 회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임

부산 스테이크 부장  
민 혜 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옛 선지자들은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 7:20)했습니다. 즉,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복음 속에서 열심히 살려 해도 우리는 부족한 몸을 가진 인간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산다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더 선한 일, 더 적극적인 진리에 대한 목표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일들로 둔화되어, 향상하려는 욕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궁핍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

적으로 궁핍하여 더욱 향상하려고 노력 할 때, 또한 부족한 것을 늘 주님께 간구할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거듭 나아가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상태와 죄를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실한 회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듯이 회개가 필요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소망과,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는 강한 결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한 심령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벗